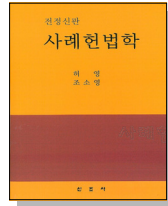




**사례헌법학(전정신판)**

허영 · 조소영 공저

이번 전정신판 '사례헌법학'은 책의 내용이 초판 또는 신정판과는 많이 다르다. 제1편과 제2편의 내용은 신정판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서술내용을 헌법 공부에 있어서 헌법이론과 헌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게 하였다. 제3편은 종래의 책에 있던 내용 대신에 종합형 사례문제를 실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 강의를 맡고 있는 조소영 교수가 학생들의 요구를 감안해서 이 책의 기초작업을 해주었다. 특히 제3편의 종합형 사례문제는 조 교수가 새로 집필한 부분이다.



[신 조사 간/B5판/양장/532면/35,000원]

**행정법 I (제17판)**

김남진·김연태 공저

제·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법령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 취소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으며,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경되면서 법학교육의 내용이 좀 더 실무 지향적으로 바뀌고 변호사 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입장을 숙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에 부응하고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의 중요 판례를 보완하고 새로운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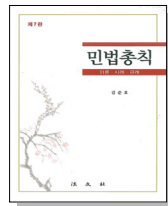


[법 문사 간/18절 판/양장/986면/48,000원]

**민법총칙(제7판)**

김준호 저

2013년 7월부터는 행위무능력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마련된 성년후견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그에 따라 민법총칙 전반에 걸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다시 전면 개정판을 내기로 한다. 이번 제7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반영되었다. 첫째, 2012년도 민사판례를 전부 반영하였고, 기출문제 등을 참조하여 누락된 판례를 찾아내 이를 관계되는 곳에 실었다. 둘째, 이론을 보완하였다. 이론적으로 부족하거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바로 잡았다. 셋째,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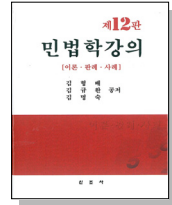
[법 문사 간/4\*6배 판/양장/490면/35,000원]

### 민법학강의(제12판)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공저

2013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행위무능력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자 지정에 관한 규정 등이 시행된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추가하고, 판례도 개정된 규정을 고려하여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삭제하였다. 판례는 판례공보 2013년 1월 15일 제410호까지 반영하였다. 특별법으로서 민법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어 2012.7.22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특수한 불법행위의 문제로서 환경오염책임에 관한 항목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신조사 간/크라운 판/양장/2127면/7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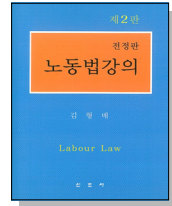


### 노동법강의(전정판)

김형배 저

『노동법강의』는 노동법의 체계와 내용을 보다 쉽게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면서도 압축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새로운 중요 판례와 문헌의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판례의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였다. 최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법령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를 별도의 절로 신설하였다.

[신조사 간/B5판/양장/663면/44,000원]



### 행정학(제6판)

오석홍 저

이 책을 개정할 때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살이 검색하여 수정하거나 첨삭하는 작업을 되풀이하였다. 행정의 변화·행정이론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술내용을 수정하였다. 지난 2년여 사이에 일어난 행정제도의 변화를 이번 개정작업에서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기존의 서술내용에 대한 저자의 관점 변화도 반영하였다. 문구와 단어의 수정도 적지 않다. 이 책은 행정학의 연구업적을 종합하고 간추려 소개한 것이다. 통사적(通史的)인 관점에서 주제선정과 해설의 종단적 균형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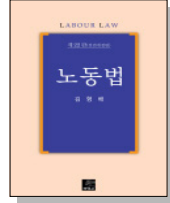
[박영사 간/크라운 판/양장/1066면/42,000원]



### 노동법(제22판)

김형배 저

금년에도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은 법률과 시행령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주목할 만한 노동판례가 적지 않게 새로 등장하였다. 학계에서도 그간의 법령개정과 새 판례에 관한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다양한 글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도급과 파견의 구별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저자는 이번에 출간되는 제22판에서 개정된 법령들과 새 판례 및 중요 쟁점사항들을 업데이트하여 반영하는 한편 책 전반에 대한 개정을 목표로 하였다.



[박영사 간/크라운판/양장/1458면/57,000원]

### 세법강의(제11판)

이창희 저

2011년의 개정법령과 새로 나온 판결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낸다. 세법 자체의 개정이야 늘 있는 일이지만 상법 특히 회사법의 개정이 세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판결 쪽에서는, 완전히 굳었다고 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아무튼 실질과세와 신의칙에서 새로운 획을 긋고 나아가서 세법해석방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판결이 몇 개 나오으로써 세법학의 기본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참고로 작년에 이 세법강의와 나란한 차례로 된 판례세법(박영사)을 따로 김석환, 박훈, 윤지현, 이준봉, 이창희 5인 공저로 낸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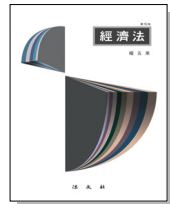


[박영사 간/4X6배 판/양장/1224면/49,000원]

### 경제법(제10판)

권오승 저

제9판을 출간한 지 만 2년 만에 다시 제10판 전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0판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법이 크게 발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 제 10판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대법원 판례의 발전 및 학계와 실무계의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 가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나 표현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적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다듬었다.



[법문사 간/4\*6배 판/양장/642면/35,000원]